

페리 필립스 박사, 역사지리학 개론: 3장 — 예루살렘

안녕하세요, 저는 페리 필립스 박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지리학 시리즈의 세 번째 강의,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지리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이의 땅과 이스라엘이 성경 역사에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 즉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과 그 산악 지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루살렘 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택하신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먼저 서쪽 벽, 즉 성전산의 일부인 이 건물을 방문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건축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헤롯이 지은 건축물 중 예수님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서기 70년경에 성전과 가장 가까웠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곳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황금문입니다. 이 두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이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의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역사와 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 예루살렘을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 지역에 속합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북쪽에 있는 므나세 지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

그리고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남쪽, 바로 그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단히 복습해 보자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주요 지역 중 하나가 미즈바, 게바, 기브아, 기브온이라는 네 도시로 둘러싸인 베냐민 고원 중앙 지역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언급했습니다. 또한 베냐민 고원 중앙의 왼쪽, 즉 베냐민 고원 중앙의 서쪽에 있는 기브온 성읍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은 아마도 이와 관련하여 읽어볼 만한 중요한 구절일 것입니다. 라마는 남북로 가는 길과 동서로 가는 길이 만나는 교차로였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관련된 성경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게 되는 최초의 언급 중 하나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이라고 읽습니다. 살렘은 시온, 즉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이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매우 중요한 장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계획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모리아 산에서의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삭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었죠. 여호수아 10장에는 예루살렘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연합은 주변 도시와 국가들이 모여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결성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연합의 중심 도시로서 기브온 공격을 이끌었고, 이후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보호했습니다.

사사기에 따르면, 그곳은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 전에는 여부스 족속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역사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그 도시를 함락시킨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왜 이것이 중요한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유다 남쪽의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북쪽의 주요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파와는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글쎄, 헤브론에서 에브라임과 므나세 지파를 다스리려 한다면, 거리가 너무 멀잖아. 게다가 에브라임과 므나세 사람들은 다윗을 유다 지파 사람들과 매우 가까운 인물로 여길 거야. 어쨌든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편애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수도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사이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수도를 베냐민 지파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여부스 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 그는 그곳에 자신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종교 중심지도 그곳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지파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는 수도를 북쪽의 주요 세력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남쪽의 주요 지파 세력인 유다 사이에 두었습니다. 미국 건국 직후에 일어났던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의 첫 두 수도는 필라델피아와 뉴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부 주와 북부 주를 연방으로 유지 하기 위해 , 그들은 현재의 컬럼비아 특별구(실제로 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의 일부였던 지역)에 별도의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는 그 지역을 양도했고, 수도는 워싱턴 D.C.에 자리 잡게 되어 북부와 남부의 주요 주들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3세가 나라 전체를 통합 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이곳은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 즉 그의 웅장한 성전을 모리아 산에 건축한 곳이기도 합니다 .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역대기하 29장에서 32장에 따르면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 왕 센나케리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서기 701년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상수도 시스템을 개량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개량으로 예루살렘은 더욱 견고한 요새가 되었고, 상수도 공급을 차단하려는 적의 공격에도 덜 취약해졌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쪽을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

우선 , 사다리꼴 모양에 가까운,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지역이 눈에 띕니다 . 바로 오늘날의 성전산입니다. 예전에는 언덕이었죠.

그곳은 헤롯 대왕에 의해 평평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에 성벽을 쌓고 흙으로 메운 다음, 아래에 아치를 세워 평탄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모스크가 있는데, 정확히는 오마르 모스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황금 돔, 이른바 '바위의 돔' 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바로 그 바위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곳은 비교적 평평한 지역입니다. 그게 아주 확연히 드러나죠. 그런데 서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중해 쪽을 보면 유다의 구릉 지대와 새 도시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작은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여기서 시작되었을까요? 왜 지금은 이곳이 행해 보이고, 주요 도시는 이 지역에 들어서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물 공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타원형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은 여부스 족속의 도시였는데, 다윗 왕이 정복했고, 도시는 그곳에서부터 오늘날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특정 지형이 눈에 띕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벽이며, 우리가 예루살렘 구시가지라고 부르는 곳을 나타냅니다.

사실 저것은 투르크족이 도시를 정복한 후에 세운 성벽입니다. 1500년대에 투르크족이 건설했죠.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성전산은 바로 이 직사각형 부분입니다.

그러니 제가 보여드릴 지도들을 보면서 이 점을 명심해 주세요. 이 지도들은 이곳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주요 지형적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키드론 계곡입니다.

이곳은 옛 도시 동쪽으로 뻗어 있는 깊은 계곡인 키드론 계곡입니다. 또 다른 주요 계곡은 히놈 계곡입니다. 히놈 계곡은 서쪽에서 시작하여 도시 남쪽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향하며, 바로 이 지점에서 키드론 계곡과 만납니다.

여기 중앙에는 또 다른 계곡이 있는데, 중앙 계곡이라고 부르거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티로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티로페라는 이름은 치즈를 만드는 사람들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작은 계곡인 횡단 계곡도 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세 개의 주요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성, 또는 시온이라고도 불리는 오펔입니다.

오펔은 히브리어로 '작은 돌출부'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곳에 소위 기혼 샘이라는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펠 바로 북쪽, 다윗의 도시에는 제가 앞서 TM과 함께 설명드렸던 성전산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소위 서쪽 언덕이 있는데, 이곳은 중앙 골짜기와 힌놈 골짜기 사이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 지도상에서 오른쪽에는 올리브 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지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남쪽에서 본 다윗의 도시죠.

여기가 바로 다윗 성읍, 이 지역에 있는 오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온산이라는 용어도 쓰고 오펠이라는 용어도 쓰겠습니다.

저는 "다윗의 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시온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겠습니다. 이 모든 용어는 이 작은 땅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키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남쪽으로 굽이쳐 흐르는 힌놈 계곡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티로페 계곡, 또는 중앙 계곡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지역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키드론 계곡은 사해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성이 주변 언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잠깐만요, 보호를 원한다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나요?" 네, 물이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 성의 상수원은 오펠 강 근처에 있습니다. 기혼 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혼 샘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오는 적들이 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매우 흥미로운 방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혼 샘의 수원 덕분에 예루살렘은 오펠 언덕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언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리적 특징에 대한 몇 가지 언급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보니 내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오펠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북쪽을 바라보면 더 높은 성전산이 있고, 동쪽을 바라보면 더 높은 올리브산이 있으며, 남쪽을 바라보면 더 높은 산과 언덕들이 보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서쪽을 바라봅니다 . 그곳은 서쪽 산입니다. 그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둘러싸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125편 2절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싸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형을 살펴보는 것이 시편 121편과 125편에서 읽는 것보다 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윗 왕조는 예루살렘을 정복했는데, 이는 도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다윗 왕조 동상은 다윗 시대의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요 구절은 역대기상 1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은 신미국표준성경 (NASB)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는데, 그곳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요새에 거했는데, 그곳을 다윗 성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마침내 그 도시를 정복하고 그곳에 궁전과 요새를 세웠을 때, 그곳은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멜로 강에서부터 도시 전체를 둘러싼 시가지를 건설했습니다. 제가 그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여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성읍의 나머지 부분을 복구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으로 가면 다윗이 여부스 성읍을 점령합니다.

여부스 족속은 다윗을 조롱하며 “절름발이와 맹인도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너무나 견고해서 절름발이와 맹인조차도 다윗 당신으로부터 도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성경에는 다윗이 시노르 강을 통해 도시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가장 잘 번역하자면 '통해'라고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부스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수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음,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 물 공급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봐야겠네요. 이 지도는 이제 익숙 하실 겁니다 .

다시 한번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여기가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의 일부인 터키 장벽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성전산입니다. 다윗의 도시인 오펔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기혼 샘입니다. 기혼 샘은 오펔 근처에 있습니다 . 기혼 샘이 있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건설한 터널도 있습니다 .

하지만 지도에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부분은 예루살렘 방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은 기혼 샘물이 이 터널을 통과한 후 모인 곳입니다.

실로암 못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후 하스몬 왕조 시대에는 수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도시는 너무 커져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수로 건설에 뛰어났던 로마인들은 32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 도시 곳곳에 저수조를 만들어 시민들과 성전산에서 행해지는 의식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도시, 다윗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리는 여부스족의 도시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 왕궁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매우 흥미로운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기혼천이 있던 자리입니다. 고고학적으로, 불과 5년 정도 전에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들로부터 샘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망루의 기초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샘물을 길어 올리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 있었는데 , 이 방법은 제가 앞서 언급했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는 센트럴 밸리이고, 이쪽은 키드론 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로 벽이 보이시죠? 왜 계곡에 벽을 세웠을까요? 물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천천히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람들이 그곳에 작물을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오펔 언덕의 측면도입니다. 이것은 오펔 언덕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단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물 공급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 여기가 키드론 계곡입니다. 그리고 키드론 계곡 바로 안에 기혼 샘이 있습니다.

좋아요, 저기는 계곡 아래쪽이에요. 도시는 저 위 언덕, 오펬에 있어요. 도시를 보호해야 하니까 성벽을 쌓아야 해요.

어디에 성벽을 쌓으시겠습니까? 계곡 바로 아래에 성벽을 쌓으면 누군가가 장대높이뛰기로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테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언덕 위에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적군은 성벽에 도달하기 전에 언덕을 넘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높은 곳에 성벽을 세우면 사람들이 살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적절한 높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어디에 세울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 시대에, 오펬 성벽의 기저를 이루는 단단한 바위에 큰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혼 샘에서 물을 끌어오는 작은 터널을 만들어 연못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못이 성벽 밖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성벽 안쪽에는 입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만들어진 계단이 있는 터널을 통해 연못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평평한 공간이 나왔고, 그 너머에 연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릇을 들고 이 터널을 통해 연못으로 내려가 물을 채운 다음 다시 성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요 식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으로 이어지는 터널로 보호되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수영장을 보호하는 두 개의 큰 망루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물을 조금 남쪽으로 끌어오기 위해 터널이 파졌습니다.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에 아직도 남아 있는 워렌 갱도라고 불리는 수직 갱도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물통을 이곳으로 가져와 갱도를 통해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 3-4월호 『성서 고고학 리뷰』에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좋은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워렌 샤프트,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그 지역은 상수도 시설의 일부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워렌 샤프트를 도시에 물을 끌어들이는 통로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여기 수영장으로 이어지는 터널 사진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금속, 아니, 금속 계단이 있죠. 수영장으로 내려가면서 왼쪽을 보면 아래쪽에 조명이 켜진 공간이 보이시죠?

내려다 보고 있었습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이 도구를 담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도구를 내려보내려면 밧줄을 사용해야 했을 것이고, 도구를 끌어올리는 동안 밧줄이 벽에 마찰되어 밧줄 자국이 남았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곳은 식수 공급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 밖에 적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 공급원이 어떻게 보호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켈, 즉 다윗 왕조의 도시를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혼 샘이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는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 터널은 기원전 701년경에 건설되었는데, 다른 방향에서 도시로 물을 끌어와 실로암 연못에 저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연못 주변에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냥 곧장 가지 않았을까요? 사실, 왜 이 길이 이런 모양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곳에 매우 단단한 암반이 있어서 터널을 파던 사람들이 더 부드러운 암반을 찾으려 했던 것 같다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암반에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물이 새어나왔고, 그 물을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기혼 샘이 있고, 여기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위쪽에는 약 45미터(150피트) 높이의 암반이 있는데, 이 터널을 뚫을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터널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두 팀이 협력하여 작업했습니다. 한 팀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다른 팀은 아래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굴착을 시작하여 중앙에서 만난 후, 기혼 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조정했습니다.

여기 위쪽에 다윗 왕궁이 있고, 나머지 도시와 성벽의 일부가 보이는데, 모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요압이 이곳에 들어왔고, 저희도 들어왔죠. 이 사진들은 제너레이션 워드 컴퍼니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스라엘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던 중이었어요.

터널로 들어오는 사람들 도 모두 이 지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here를 보세요.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바위가 제거되었는지 알 수 있죠? 여기가 바로 터널 안쪽입니다.

지하 50미터, 즉 지표면에서 약 150피트 아래까지 암반을 뚫고 갱도를 뚫었습니다. 길이는 약 500미터, 즉 800미터가 조금 안 됩니다. 인부들은

양쪽 끝에서 작업을 시작하여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역대기 32장에 기록된 것처럼,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혼 샘의 윗부분, 즉 물이 골짜기로 흘러나가는 곳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막고 이 수로를 파서 물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서쪽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역대기 2장 3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800년대에 터널 입구에서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두 팀, 즉 인부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업하면서 곡괭이 소리를 따라 남은 바위를 파내어 서로를 향해 터널을 연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위해 약간의 추가 굴착 작업이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업이었죠. 네, 그때가 다윗 왕이 성을 함락시킨 시기였고,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수원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도시 확장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펠 성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이고, 동쪽으로는 기드론 계곡이 보입니다.

저기에 성전산 이 있죠. 아주 눈에 띄는 지형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는 기혼 샘과 히스기야 터널, 그리고 나중에 언급할 실로암 연못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키드론 골짜기, 티로페 골짜기 또는 중앙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이 타원형 영역은 다윗 시대 도시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는 오펠 산이 있는 이 언덕의 윗부분, 즉 성전산 지역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성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후 느헤미야 와 에스라 시대, 그리고 헤롯 대왕 시대에도 이 지역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도시가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고고학적으로 흥미로운 유적들이 많으며, 저는 이 지역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앞서 오펠과 성전산의 윤곽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제 아랍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발굴된 유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키엘의 집이 있는데, 이곳에서 아키엘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 발견되어 '아키엘의 집'이라고 불립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매우 부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다윗 시대, 즉 기원전 11세기에서 9세기경의 집들은 2층

구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이는 기둥들은 실제로 2층 구조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구조물, 소위 지지벽입니다. 이 지지벽은 기념비적인 건물을 지탱했는데, 그 건물의 기초가 바로 그 지지벽 위에서 발견 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왜 지지벽이 필요할까요? 언덕 위에 큰 건물을 지으려면 아래쪽 경사면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지벽은 그곳에 세워진 기념비적인 건물의 기초 역할을 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설 했을까요 ? 바로 이 벽을 쌓고 그 뒤쪽을 흙으로 메운 것입니다.

제가 밀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건설할 때 밀로는 예루살렘 성읍 건축의 주요 특징이 되었습니다. 밀로는 히브리어로 '채우다'라는 뜻인데, 이는 바로 이 기초벽과 그 뒤에 채워 넣는 흙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이 언덕 위에 건설할 때 사용했던 공법입니다.

계단식 경작지, 벽, 흙을 메운 구조물,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이 거대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얼마나 웅장한지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다윗 왕궁으로 추정되는 이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자로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모양의 조각상이 보입니다 . 이것은 거대한 건물의 기초입니다.

이 발굴 작업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최고 고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유명한 벤자민 마자르의 손녀인 에일랏 마자르가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건물을 발굴했으며 다윗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다윗 왕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복원된 다윗 왕궁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본 이 거대한 기초 위에 세워진 모습입니다. 아히엘의 집 옆방에서 흥미로운 유물을 하나 발견 했습니다 .

이건 우연히 발견한 재미있는 물건 중 하나예요. 이 돌맹이에 주목해 주세요. 크기는 큰 노트북만 해요.

가까이서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변기예요. 옆으로 눕혀 놓은 걸 보면 , 사용할 때는 가로로 눕혀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변기예요.

이것도 아키엘의 집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물건 중 하나죠. 어쨌든, 이것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곳은 오펠 성채가 아닙니다.

드론 계곡 건너편에 있는 현대 마을 실완입니다. 집들이 서로 겹겹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 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시편 122편 3절에는 예루살렘이 뻥뻥하게 들어선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높은 건물 옥상에서 아래 건물 옥상을 내려다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아마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가 생각나실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밋세바가 왜 오후에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시의 높은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리적인 맥락이 이야기의 배경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슬픈 이야기이지만,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은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 제국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은 기원전 450년경에 건축되었지만, 그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작은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성벽은 기원전 450년경이 되어서야 재건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고, 이 시대는 기원전 63년 로마 시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사도들과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알렉산더 대왕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후손들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알렉산더 대왕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지역을 정복할 때 유대인 용병을 고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스몬 왕조의 서쪽 언덕 지역으로의 확장은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북쪽에서 온 그리스 지배자들에 맞서 싸운 전사 가문입니다. 그리스 지배자들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익숙했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 헬레니즘 문화로 개종시키려 했습니다. 기원전 167년경부터 내전이 발발했고, 기원전 140년경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러한 독립은 기원전 63년 폼페이아가 침략하여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헤롯 왕 시대에는 성전과 성전산이 기원전 40년경 이후에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헤롯이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은 기원전 37년경 이후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서기 30년경에 일어났고, 그 후 유대인들의 반란과 예루살렘의 파괴는 서기 70년에 발생했습니다. 오펠 맞은편 기드론 계곡에 가면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에 남겨진 유물들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단단한 바위를 깎아 만든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실존 인물들을 기리는 기념물입니다 .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압살롬의 기둥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압살롬 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입니다. 이쪽은 스가랴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언자 스가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과 신약 사이의 시대의 매우 흥미로운 건축 유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키드 룬 계곡 이 지역에는 바위에 직접 지어진 무덤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까지도 올리브산, 바로 우리 뒤에 보이는 올리브산에는 작은 돌들이 모두 묘비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산은 키드 룬 계곡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매장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성벽이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있고, 이쪽은 여러분이 사진이나 다른 지도에서 보셨을 성전산입니다.

우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헤롯 대왕 시대에 성벽이 지금과는 조금 달랐다는 점입니다 . 흰색 으로 표시된 부분 이 바로 그 시대의 성벽입니다. 여기에 성전산이 있었죠. 현대의 성벽, 아니 정확히는 터키 성벽이 지금처럼 뻗어 있는 모습은 잘 보이시죠? 하지만 헤롯 시대에는 성벽이 중앙 계곡 , 힌놈 계곡, 기드론 계곡이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 실로암 못이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에 얽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벽은 힌놈 계곡을 따라, 즉 현재의 성벽이 있는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대신 안으로 들어가 있었죠. 참고로, 성벽 바로 바깥쪽에 있는 성묘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시를 재건했고, 재건 작업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4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40년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되었지만,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은 기원전 37년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2년경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성전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웅장한 성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전 부지 자체는 헤롯 시대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고대 시대에 지어진 성전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이 모든 것은 헤롯 대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은 웅장한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이 지역에 웅장한 궁전도 지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흐만 아비가드라는 이스라엘인이 그 지역에서 많은 발굴 작업을 진행하여 당시 도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비 요나라는 또 다른 이스라엘인이 그의 작업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이 모형은 1:50의 축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헤롯 대왕의 궁전 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체포되시던 날 저녁에 빌라도와 만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곳은 세 개의 큰 망루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궁전의 두 부분을 연결하는 열주가 있었는데, 정말 웅장한 특징이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신전 구역이 있고, 저것이 바로 신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탑 네 개가 있는 이 건물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헤롯 대왕의 절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에 이 요새를 건설하여 성전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반란을 막으려 했습니다. 헤롯은 반란이 일어날 경우 성전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견고한 요새를 짓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습니다.

이곳은 안토니아라고 불립니다. 이를 통해 건물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궁전과 신전 지역 사이의 거리는 아마도 800미터 정도 될 것입니다.

에는 다른 건물들도 많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신전 기단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저기 있는 신전, 그리고 제가 앞서 언급했던 안토니아 요새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마치 헤롯 왕궁에서 성전 지역을 바라보는 듯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현관 또는 솔로몬의 열주라고 불리는 회랑이 보이시죠?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서 꽤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도 그곳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왕궁 회랑으로 알려진 곳이 있는데, 이곳 역시 가르침을 전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터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가르침을 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주 만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성전 터에서 모임을 가졌고, 아마도 서기 70년에 성 안에 있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도 성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뜰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누구나 갈 수 있었고, 여성의 뜰이 있어서 유대인 여성과 남성이 갈 수 있었으며, 남성의 뜰이 있어서 오직 남성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성전 안쪽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 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가능했죠.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쪽 계단은 여성들이 갈 수 있었던 여성들의 뜰로 이어집니다. 여기 작은 난간이 보이시죠? 그 난간에는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경고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저 난간 너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죠. 요컨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저 계단에서, 즉 이방인의 뜰 밖에서 붙잡히면, 그 죽음에 대해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바울이 트로피무스를 데리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고발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이유로 그들은 그를 신전 지역에서 죽이려던 참이었고, 다행히 로마 백인대장이 그를 구해냈습니다. 남서쪽에서 바라본 신전의 모습입니다. 이쪽 지역, 바로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신전입니다.

여기는 왕립 회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티로페안 계곡이고요. 자, 여기는 극장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거기에 실제로 극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의문점입니다. 이 특정 모형에는 극장이 있지만, 여러분께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볼 수 있는 유적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바로 중앙 계곡입니다.

센트럴 밸리에서 템플 마운틴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거대한 계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저기 보이는 아치가 그 계단을 지탱하고 있죠. 템플 마운틴에 연결된 그 아치의 기초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쪽 언덕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지도자들,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던 곳과 성전산(월슨의 아치라고도 불리는 곳)을 연결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일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실제 모습을 근접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지만, 헤롯 대왕이 흙을 쌓아 올려 모리아 산의 둥근 언덕을 평평한 성전산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했던 거대한 돌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이 어떤 곳인지 대략적인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안토니아 요새, 신전, 왕실 회랑. 우리는 지금 도로변에 서 있는데, 이곳에는 밖으로 이어지는 아치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이 아치는 아래로 뻗어 내려오는 거대한 계단을 지탱했고, 계단은 각도를 이루며 로마 도로가 있던 중앙 계곡으로 이어졌습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잠깐, 여기 있는 이 돌들은 뭐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로마인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사람들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성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산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죠. 그들은 그 전체 웅벽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돌들은 로마인들이 성전산 꼭대기에서 던진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막혀 있어서 볼 수는 없지만, 도로에 금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금이 간 것은 바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거대한 돌들의 충격으로 로마 도로가 손상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돌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는데, 나팔을 불던 장소, 즉 성전산 모퉁이(이전 사진이 찍힌 곳)에서 축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축제 때 누군가가 그곳에 올라가 나팔을 불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는데, 이는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탈무드와 같은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던 장소라고 적힌 이 돌은 아래쪽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돌의 크기를 가늠해 보시라고 제 아내 일레인을 자처럼 세워 놓았습니다. 이 돌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그것은 뒤쪽의 흙을 막아주는 데 사용됩니다. 이 돌들 중 가장 거대한 이 돌은 겨우 400톤에 불과합니다. 맨 아래쪽에는 길이가 약 40피트(약 12미터)이고 무게가 약 570톤에 달하는 더 큰 돌들이 발견되었는데, 헤라는 이렇게 거대한 돌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면도날조차 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조립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침식이 진행되어 돌 사이에 약간의 틈이 생겼지만, 면도날조차 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합니다. 모리아 산을 평평하게 다듬어 성전산을 건설하기 위해 흙을 메우던 거대한 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쪽 웅벽 기슭에는 기반암까지 이어지는 터널이 건설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다른 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길이가 40피트(약 12미터)이고 무게가 570톤에 달하는데, 어떻게 그토록 정확하게 제자리에 옮겨 놓았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라서 따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다른 사건들과 장소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못(또는 베데스다 못)의 유적은 도시의 북서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는 고고학 유적지 이고, 여기는 성전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베데스다 연못인데, 성전 유적지와 얼마나 가까운지 보세요. 여기는 성전산입니다. 이곳은 성전산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성전, 왕궁 회랑,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열주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는 이 건물에 다섯 개의 현관이나 다섯 개의 열주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이제 요한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개는 건물 둘레를 따라 쪽 이어져 있고, 하나는 정중앙에 있습니다. 즉, 다섯 개의 현관, 다섯 개의 열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었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이 서기 70년 이후에 쓰였다면, 베데스다 못에 다섯 개의 회랑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따라서 요한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관점에서 글을 쓴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언급했던 실로암 못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침을 뱉으시며 그의 눈이 먼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신 다음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향기라는 뜻이다. 실로암 못은 실로아 못이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실로는 향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내려가서 향기라는 연못에서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은 성전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산 이에요 .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신 곳이 바로 여기 위쪽이죠. 실로암 못은 여기 아래쪽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람의 눈에 바르신 곳과 씻으라고 말씀하신 곳 사이의 거리는 거의 800미터(반 마일)에 달합니다. 단순히 800미터나 되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고도차는 150미터입니다. 자, 이 높이를 3배로 곱해 보세요. 그러면 약 137미터(450피트)의 고도 차이가 납니다.

눈에 진흙을 바른 남자가 저 아래로 내려 가야 하는데 ,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 궁금해지네요. 우선, 그는 사원을 떠나고 있어요.

그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아마도 남쪽, 그러니까 문과 계단이 있는 남쪽 길을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계단 중 상당수는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볼 수 있으며, 이 계단은 여러 문을 통해 성전 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암 못을 향해 남쪽으로 향하면서 , 매우 뻑뻑하게 들어선 도시의 일부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황을 잘 파악해 보세요.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누가 그를 이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그는 질문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하지?" 같은 질문을요. 어쩌면 그는 도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비록 그가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란다면 도시에 대해 잘 알 리가 없겠지만요. 어쩌면 그는 이전에 실로암 연못에 와본 적이 있어서 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는 사람들에게 "저기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겠어요?"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그를 어느 정도까지 데려다주고,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눈에 묻은 진흙은 뭐 하는 거예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됐어요, 그냥 실로암 못으로 안내해 주세요. 좋아요, 그냥 저를 거기 아래에 두고 가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바보 좀 봐. 눈에 흙이 들어갔잖아. 도대체 왜 눈에 흙이 들어간 거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냥 저를 실로암 연못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냥 거기서 데려가 주세요. 결국 그는 실로암 연못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실로암 연못이 있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이 실제로 비잔틴 시대의 것이었고, 후에 십자군 시대에 재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바로 헤롯 왕 시대, 예수 시대의 진짜 실로암 못입니다. 물속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시 모습을 상상해 그린 것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계단을 보셨고, 이 그림은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고, 그는 계단을 내려가 손을 뻗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물을 튀기자,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리고 이 기적이 놀라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게 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모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못으로 보내셨는데, 실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실로 못 또는 실로 못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맹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그 못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그곳에서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연못에 도착합니다. 성령은 창조 때 빛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물이 맹인을 비추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과 나누는 대화 중에 맹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군요."

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 하지만 역사적으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시력을 되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를 보게 해줬어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맹인이 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신학적 연관성을 지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실로 못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수난에 관한 몇 가지 다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이쪽은 성전산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기는 성전산입니다. 헤롯왕의 궁전이 이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 지역들 사이,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는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정원에서 체포되어 예루살렘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대체사장, 즉 빌라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 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 체포, 그리고 십자가형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는데, 그곳은 성전산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바로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만국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 바로 왼쪽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겟세마네는 '올리브 압착기'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올리브를 수확했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바로 그 정원에 있는 이 나무의 줄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정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 들어갈 수 있다 해도 제 손이 닿을 거리 정도일 거예요. 저 나무줄기가 딱 이 정도 굵기거든요.

저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저 올리브 나무는 적어도 1,800년 전, 어쩌면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는 없었을 테지만, 어쨌든 이 나무는 그 시대의 나무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나무들의 변종일 수도 있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거처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예루살렘에서는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매우 화려한 집터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정치 체제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의 소유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이 활동하던 이 지역에서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아버지 안나스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빌라도를 만나러 끌려가셨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는 지금 성묘 교회가 있는 작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로 이 건물에서 그가 끌려나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성묘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든 증거가 성묘 교회를 뒷받침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정원의 무덤'이나 '골고다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언덕을 자세히 보고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해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 콧대, 아니 콧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입과 이빨의 일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동 예루살렘 선착장 바로 옆이에요. 어쨌든 흥미로운 곳이고 분위기도 예수님 시대 와 비슷 했을 것 같아요 .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바로 그곳이 있는 성묘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덤은 그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성묘 교회에 묻히셨는지 아니면 정원 무덤에 묻히셨는지는 흥미로운 역사적 논쟁거리이지만, 어쨌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올리브산에는 그분의 승천을 기념하는 작은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해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